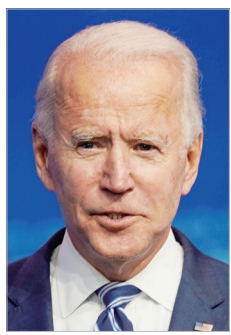


바이든 “중, 대만공격시 군사 개입”

‘직접 방어하나’ 질문에 “그렇다” ‘전략적 모호성’ 깨고 입장 재확인 미국 정부 정책 변경 가능성 주목



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 침공 때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 (60 Minutes)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방어에 나서지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만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 대만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

미국은 수십년간 이런 태도를 앞세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에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대만이 독립국이 아닌 자국 영토 일부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작년 10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대만 방어 여부를 묻는 말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일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군사개입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깨는 듯

한 이 같은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5월 발언 뒤 논란이 커지자 “정책에 전혀 변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군사개입 가능성 시사가 지난번보다 선명하며 중국을 자극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매파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모호성 전락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대중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대만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대만정책법안이 지난 14일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변되는 기존 정책을 탈피하는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할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절차

- 9월 19일 오전 6시 30분 (현지시간 기준)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여왕의 관 일련된 장례송구
- 10시 44분 여왕의 관, 웨스트민스터 홀 →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구
-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 시작
- 11시 55분 영국 전역 2분간 묵념 후 백마브리프 국가 연주와 함께 장례식 종료
- 낮 12시 15분 포자에 실린 여왕의 관, 웰링턴 아치까지 장례행렬 행진 (이번 행진엔 타운 (빅벤 포함) 참여)
- 오후 1시 여왕의 관, 운구차로 윈저성까지 이동
- 3시 윈저성 도착. 통워크(5km)에서 장례행렬 후 세인트 조지 교회 도착 (약 800명 참석)
- 4시 윈저성 내 성조지 예배당에서 소규모 예식 (약 800명 참석)
- 7시 30분 지하 황실 납골당에 안장

장례식 준비

- 여왕의 관은 지하 납골당에 안치 (2021년 4월 발탑공 안치)
- 제단
- 왕실 가족과 초청인사 좌석
- 성가대석 성가와 찬송가 등 합창
- 여왕의 관 성가대석을 지나 단상에 오름

웨스트민스터 사원

- 중앙 제단
- 여왕의 관 신도석과 성가대석을 지나 단상에 오름
- 네이브(신도석) 세계 주요국 정상 왕족 등 500명과 영국 전·현직 총리 등 약 2천명 참석
- 서쪽문

윈저성

- 윈저성 통워크(5km)
- 윈저성 (영국 왕실의 대표적인 궁전)
- 윈저성 내 성조지 예배당
- 사건 구역

자료: BBC, 로이터, AFP, 연합뉴스

여왕 ‘세기의 장례식’ ...철통 보안작전

주요국 정상 등 100만명 운집 경호·질서유지에 경찰 ‘비상’

이 초대됐다. 이들과 함께 리즈 트러스 총리 등 영국의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2천명은 오전 11시부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한다.

영국의 최장 재위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은 주요국 정상과 왕족 500명을 포함해 10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세기의 장례식’으로 치러진다.

영국 외무부는 국왕의 장례식이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교행사가 불상사로 열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귀빈 의전에만 공무원 300명을 투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영국은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총리가 서거한 이후 57년 만에 입수되는 여왕의 국장을 앞두고 사상 최대의 보안 작전에 돌입했다.

외무부는 당초 정상들이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으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 리무진을 타게 해달라고 ‘별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상 의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경찰은 군중 속에서 왕족이나 군주제에 반대하거나, 특정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사람이 돌발적으로 소란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중이다.

19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장례식에는 100만명의 영국 국민이 왕을 추모하기 위해 런던 중심부를 가득 메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장례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행사인 만큼 사회적 이슈나 개인적 문제를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왕의 장례식을 위한 정부 계획인 ‘런던 브리지 작전’은 경찰이 주도한다.

여왕 서거 후 지난 주 이뤄진 찰스 3세의 즉위식 행사에서는 “내 왕이 아니다”고 소리친 옥스퍼드 출신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수도 런던에서 활동하는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런던시 경찰, 영국 교통경찰은 여왕이 서거한 지난 8일부터 런던 전역에서 장례식 당일을 대비해 훈련해왔다.

응급서비스, 소방, 교통 분야에서도 당국은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사상 최대의 치안 인력을 장례식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식 응급의료망과 별도로 ‘세인트 존 앰블런스 협회’는 24시간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 1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튜어트 콘데 메트로폴리탄 경찰 부국장은 “단일 행사로서 이번 장례식은 2012년 런던을 랍픽보다도, 플라티넘 주빌리(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행사)보다도 더 크다”며 “이번 작전을 수행할 경찰관과 경찰 직원 등 지원인력의 범위는 정말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런던 소방대는 40개 이상의 교통 요지에서 화재 안전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호텔과 레스토랑, 상점 등에서도 하루 160건의 검사를 수행 중이다. /연합뉴스

수백명의 귀빈이 한꺼번에 영국을 방문하는 만큼 경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왕의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와 정치인, 왕족 등 고위인사 500명 이상



19일 태풍 ‘난마돌’이 일본 서남부에 상륙한 가운데 가고시마현 이사의 센다이강 강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 ‘난마돌’ 일본서 하루 726mm 폭우

관측 기록 경신...하천 범람 위험

높은 해수 온도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발달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열도에 기록적인 비를 뿌리고 있다.

19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난마돌의 영향으로 일본 규슈 지역의 8개 관측점에서 하루 강수량이 500mm를 넘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미야자키현 에비노

시 관측점으로 이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강수량이 725.5mm였다. 이 관측점의 9월 강수량(30년 평균치)은 482.6mm다. 한달 반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것이다.

오전 9시 10분까지 집계한 결과 미야자키현 니시메라스(579.0mm) 등 규슈, 야마구치현, 에미메현의 7개 관측점에서 24시간 강수량이 관측 사상 1위 기록을 경신했으며 26개 지점에서 9월 강수량 1위 기록을 새로 썼다.

당국은 집중 호우로 인한 강물 범람을 막기 위해 규슈와 시코쿠를 중심으로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댐 105개의 사전 방류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방류를 적극적으로 채택한 2020년 이후 단일 태풍 대응으로는 이번에 가장 많은 댐에서 물을 미리 배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19일 오전 7시 기준 야마구치, 후쿠오카,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등 6개 현에 있는 하천의 관측소 33곳에서 강물이 범람 위험 수위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NHK가 전했다. /연합뉴스

주식회사 천 (Cheon)

대표이사 박갑수

소방자재 전문업체 TEL. 062_375_2428
광주시 서구 칠성로 27, 3층